

## 인두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의 재건방법에 대한 고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

백승국\* · 권순영 · 우정수 · 조승현 · 조재구 · 정은재 · 정광윤

### 목적

인두후두전적출술을 시행한 환자의 인두재건에 사용된 재건술의 종류에 따른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 방법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인두후두전적출술을 시행 받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통해 병기, 재건 수술방법, 합병증에 대해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 결과

남자 18예, 여자 5예에서 수술이 시행되었고 연령은 평균 57세였다. 18예의 하인두암과 1예의 하인두와 식도의 동반암, 후두암과 식도암이

동반된 2예, 식도암 2예가 있었으며 stage III인 1예를 제외한 나머지 예는 모두 stage IV였으며 재건수술로는 위간치술 14례(60.9%), 전완유리피판술 6례(26.1%), 유리공장이식술 2례(8.7%), 대장삽입술(Colon interposition) 1례(4.3%)를 시행했다. 재건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위간치술은 복부창상염증과 만성적인 역류질환이 발생하였고 전완유리피판술은 인두피부누공과 인두식도협착, 유리공장이식술과 대장삽입술은 만성적인 연하곤란이 발생하였다.

### 결론

인두후두전적출술과 부분식도절제술 또는 식도전절제술을 시행하고 각 재건술의 장단점을 이해하여 적절한 재건술을 선택한다면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나 수술후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